

수 학 보 고 서

소 속	명지대학교(스마트인프라공학부) 환경시스템공학전공	
파 견 국 가	미국	
파 견 대 학	Endicott College	
파 견 기 간	시작	2025년 1월
	종료	2025년 5월

준 비 과 정	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
	<p>토플 커트라인인 80점을 맞추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. 시험은 약 3개월 정도 준비했는데, 단순히 점수를 높이기보다 영어 실력을 진짜로 키우는 데 의의를 두고 공부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토플 시험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</p>
	파견교 지원 과정
	<p>미국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 파견 조건에 맞춰 준비했고, 파견교 리스트 중 전공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. 아직 학점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, 과목 이수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들으려던 수업이 제가 이미 들은 과목이거나 명지대 수업과 방향이 달라서 전공 학점 인정 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공대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을 특히 신중하게 고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계절학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초과학기는 하지 않겠지만, 마지막 학기를 꽤 열심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.</p>
	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(비자, 항공권, 준비물 등)
	<p>25-1 미국 파견 학생 단톡방이 있었는데, 다른 학우들은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중이었고 저만 Endicott 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먼저 명지대 측에 문의했습니다. 이후엔 차근차근 잘 진행됐습니다. Endicott 은 다른 학교에 비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많았습니다. 특히 Health Form 을 위해 받아야 할 검사가 많아서 병원비로 약 40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비자는 1 주일도 안 걸려서 나왔고, 항공권은 학기 끝나고 여행할 생각으로 편도로 끊었는데, 왕복이 훨씬 쌉니다. 인천-보스턴 직항도 있습니다.</p>

파견 학교	공항 픽업 & 오리엔테이션
	<p>공항 픽업은 학교에서 우버를 잡아줬습니다.</p> <p>교환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은 약 4일간 진행됐는데, 기본적인 내용 중심이라 실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재학생 친구들에게 들은 것이 더 도움이 됐습니다.</p>
	수업 & 학교 활동
	<p>Endicott은 수업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. 많은 수업도 30명이 안 되고, 교수님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느낌이 강합니다.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교수님께 바로 연락드리는 걸 추천합니다.</p> <p>학기 내내 퀴즈, 발표, 토론이 있었고,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영어가 제2언어이다 보니 자료를 읽거나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.</p> <p>Intercultural Communication 수업은 교환학생 필수 과목이었는데, 모두 함께 듣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</p>
	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
	<p>저는 Marblehead에서 지냈는데 꽤 좋은 기숙사였습니다. 교환학생들은 Marblehead, Kennedy, Venuti에 배정됐었고, 모두 시설이 괜찮았습니다. Bayview도 인기가 많습니다. 반면, 1학년 기숙사는 별로였습니다.</p> <p>Venuti 건물 안에 편의점이 하나 있지만 물건이 거의 없고, Lodge라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식당에서 더블치즈 버거랑 Loaded 감자튀김이 맛있었습니다.</p>
주변 환경	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
	<p>-Beverly: 시골이라 거의 갈 일이 없었습니다. Pickled Onion이라는 Endicott 학생들이 자주 가는 펍이 있는데,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.</p> <p>-보스턴: MBTA 주말 패스를 끊으면 \$10에 갈 수 있고,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.</p> <p>-기타: 친구들이 차가 있어서 주말에 다른 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는데, 대부분 시골이었습니다. 그래도 뷰는 정말 좋았습니다.</p>
	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
	<p>뉴잉글랜드 지역 특성상 백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. 보스턴으로 나가면 중국인도 꽤 많았던 기억입니다.</p> <p>봄 학기(1~5월)는 정말 추웠습니다. 귀국할 즈음 날씨가 풀리긴 했지만, 저는 항상 겹옷을 들고 다녔습니다. 20도 중반이 최고 기온이었고, 바람이 세서 체감온도는 훨씬 낮았습니다.</p> <p>가을학기 날씨가 진짜 좋고 이쁘다고 하던데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</p>

	도 저는 거울을 좋아해서 괜찮았습니다.
비 용	등록금 (해당 학생만)
	명지대 등록금 납부
	기숙사 비용 (해당 학생만, 학기당)
	\$6,136
	추가 비용 (교재비, 보험 등)
	Meal Plan: \$2,767
	Curricular Fee: \$450
	Insurance Enroll: \$1,675
	Deposit: \$500
	기숙사 포함 총 \$11,528 납부했습니다. 교재비는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. 내년부터 5% 인상된다는 메일 받았던 거 같습니다.
	생활비
	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
	한달 평균 지출 비용
	한 달에 평균 \$800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. 쇼핑을 좀 하기도 했는데, 친구가 차가 있어서 교통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.
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	
<p>길지만 짧았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처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 잘 안 나오고, 발음 때문에 상대가 못 알아들을까 봐 위축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유럽 친구들도 억양이 꽤 강해서, 발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겼고, 영어 실력도 확실히 늘었다고 느꼈습니다.</p> <p>Endicott에 파견된 학생이 저뿐이었고, 재학 중인 한국인도 없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 외로웠습니다. 하지만 그 덕분에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, 결과적으로는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</p>	

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, 여러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무엇보다도,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

사진 첨부 (최소 5장)

기숙사







강의실









